

‘SK 삼형제’, ICT 연합 결성... 1조 들여 글로벌 공동 키운다

(스퀘어-텔레콤-하이닉스)

반도체-통신-투자 시너지 창출
올해 해외 투자 위한 거점 마련
지속적으로 공동 사업 추진 예정

SK스퀘어,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 ICT 융합기술을 공동 개발 및 투자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도모하는 ‘SK ICT 연합’ 출범을 선언했다.

3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2에서 ‘SK ICT 연합’ 출범을 밝히고, 올 1월부터 박정호 부회장 주도하에 유영상, 이석희 사장이 참여하는 ‘3사 시너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외 반도체, ICT 분야 R&D (연구개발) 협력, 공동투자 등을 논의하고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SK하이닉스가 SK그룹 편입 10주년을 맞았고, SK텔레콤 분할로 SK스퀘어가 탄생하면서 반도체-통신-투자를 잇는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업 구조가 마련됐기에 이 같은 비전을 구현할 수 있었다.

SK ICT 3사는 반도체, 5G, AI 등 다양한 ICT 영역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두루 갖춘 기업이 드문 상황



박정호 SK스퀘어 부회장이 CES 2022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SK ICT 연합’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SK텔레콤

에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SK스퀘어의 혁신투자 ▲SK텔레콤의 5G·AI 기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미래 혁신 기술을 지렛대 삼아 지속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KT 자체 개발 AI 반도체 ‘사피온’ 키운다

SK ICT 3사 시너지의 첫 결과물은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사피온(SAPEON)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다. 3사 공동 투자를 통해 미국법인 ‘SAPEON Inc.’를 설립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SK텔레콤은 5G, AI 분야에서 축적한 R&D 역량과 서비스 경험을 기반으로 SAPEON 기술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전용 SAPEON 모델 라인업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AI 반도체의 시너지를 도모하며, SK스퀘어는 SK텔레콤과 함께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를 공동 유치할 예정이다.

SAPEON Inc.는 주로 미국에 거점을 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삼아 AI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는다. SAPEON Korea는 SAPEON Inc.의 자회사로 한국과 아시아 지역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SK텔레콤은 미래 ICT 서비스가 AI와 메타버스를 융합한 세상, 즉 ‘AI-VERSE(AI와 Universe의 합성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T우주·이프랜드(ifland)·AI 에이전트 3대 서비스를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에 이어 향후 10년을 이끌어 갈 미래 디바이스(기기)인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로봇에 진화된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를 더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AI, 메타버스, 5G 분야내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응해 SK ICT 연합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조원 이상 ICT 투자자본 공동 조성 추진

SK ICT 3사는 올해 해외 투자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총 1조원 이상의 글로벌 ICT 투자자본을 조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 유수 투자자들과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조성된 글로벌 ICT 투자자본

의 투자처는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반도체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될 전망이다.

SK ICT 3사는 전략적 투자를 기반으로 ICT 기술 융합 트렌드를 주도하고, 미래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해외 유니콘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SK ICT 주력 사업과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글로벌 일류 기술기업 도약

SK하이닉스는 급변하는 ICT 환경을 주도하는 글로벌 일류 기술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해 낸드 플래시 경쟁력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기존의 반도체 공급사 역할에서 벗어나 글로벌 유수 ICT 기업과 함께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특히 세계 최대 ICT 시장이자 격전지인 미국에서 ‘인사이드 아메리카(Inside America)’ 전략을 실행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미주 사업조직을 신설하고 미주 R&D 센터도 건립한다.

/채윤정 SI 전문 기자 echo@metroseoul.co.kr

‘넷제로’ 비전 담은 SK 전시관... 외신도 극찬

탄소감축 돕는 기술 등 선보여
현존 최고 배터리 ‘NCM9’ 혁신상

미국 방송사 ABC는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에 SK그룹 전시관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을 중요하게 보도했다. SK가 탄소 감축 비전을 어떻게 실현중인지 증강현실 등 기술로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 출근 시간 내바다주 300만명 가량 시청자에 방송됐다.

SK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현지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방증이다. ABC

는 전시관과 함께 최태원 회장의 2030년 기준 전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 감축 비전에 주목하고, 이번 전시로 ‘넷제로’를 향한 SK그룹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BC는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했다. SK온이 만드는 고성능 하이니켈 NCM9 배터리와 SK에코플랜트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담은 ‘넷제로 시티’ 전시 등을 소개하면서 SK가 보유한 기술이 어떤 식으로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지를 다뤘다. 특히 NCM9은 배터리 양극재의 주 원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 중 니

켈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현존 최고 배터리 중 하나로 이번에 CES 혁신상 두 개를 받았다.

하이라이트인 ‘생명의 나무’관을 비출 때에는 ‘아름답다’는 앵커의 탄성도 나왔다. 미디어 아트 형식 4개 벽면에 울창한 숲을 보여주면서 전시관을 녹색으로 가득 채우는 모습이다. “코로나 시대에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창의적으로 전시를 꾸민 기업 중 하나”라는 설명도 더했다.

참여형 전시로도 눈길을 끌었다. 관람객에게 증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나눠주



5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SK그룹 전시관. /SK

고, NFC 태그에 대고 그린포인트를 받아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보호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SK이노베이션이 2018년

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CES2022 행사 기간 동안만 1억원 가량을 적립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재용 기자 juk@

‘최고 기술력’ 입증한 삼성·LG전자, CES 혁신상 싹쓸이

신가전 분야에서 두각 나타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CES2022에서 각종상을 휩쓸었다. 각각 영상과 음향 분야, OLED TV와 신가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에서 108개 어워드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CES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CTA)에서만 CES혁신상 21개다.

특히 2022년형 마이크로 LED와 네오 QLED가 독보적인 화질을 인정받았다. 미국 톰스가이드가 ‘삼성 마이크로 LED 없는 CES는 상상할 수 없다’고 극찬했고, 네오 QLED 8K도 새로 적용한 셰이프 어댑티브 라이트와 리얼 텍스

인행서로 미국 테크레이더에 ‘영상의 밝고 어두운 곳을 미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다. 미국 트러스티드 리뷰 역시 ‘마치 실재와 같은 영상을 구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더 프리스타일도 테크레이더에 ‘작은 기기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네마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더 프레임도 톰스가이드에 ‘이 제품이 TV라는 것을 잊게 하며 진짜 액자처럼 보인다’고 평을 받았다.

삼성 모니터도 위상을 높였다. 특히 게이밍 전용 스크린 오디세이아크가 테크 아이리스에 ‘업무부터 게임까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극찬을 받는 등 게이밍 모니터에 호평이 많았다.

LG전자 역시 90여개 상을 받았다. CTA 최고 혁신상만 24개다.

LG전자도 영상 분야에서 활약했다. LG울트라파인 에르고모니터가 최고 혁신상을 받는데 이어, LG 올레드 TV는 10년 연속 CES혁신상에 선정됐다.

특히 LG 올레드 에보는 마이크로 LED와 QD-OLED를 제치고 톰스가이드에서 뽑은 최고 TV로 선정됐다. 아름다운 갤러리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이 호평 받았다. USA투데이도 선명한 색상과 명암비, 에너지 효율과 넓은 시야각에 높은 점수를 줬다.

프리미엄 생활가전도 주요 어워드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테크아리스가 LG 퓨리케어 에어로타워를 최고의 공기청정기로 선정하며 ‘독자 기술로 일정하고 편안한 바람을 전달하고 모던한 아름다움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재용 기자

현대그룹-ABS 선박 자율운항 기술표준화 나서

자율운항 규정 맞춰 단계별 실증

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Avikus)가 미국선급협회(ABS)와 협력해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표준 개발을 앞당긴다.

아비커스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ABS와 선박 자율운항기술 단계별 기본인증(AIP) 및 실증테스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 아비커스 임도형 대표와 ABS 최고운영책임자 존 맥도날드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ABS는 대표적인 국제 선급협회 중 하나로 해양 첨단기술 및 해상 구조물 등에 대해 기술 적합성 및 기준을 선정해 해양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

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아비커스는 자율운항(HiNAS)과 자율접안(HiBAS), 완전 자율운항(HiNAS2.0) 등 자체 개발한 다양한 솔루션을 ABS가 지난해 7월 제정한 ‘자율운항 규정(Guide for Autonomous and Remote Control Functions)’에 맞춰 단계별 실증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아비커스는 자체 보유한 자율운항기술에 대해 단계별 인증 획득이 가능하며, ABS는 아비커스의 실제 운항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계별 실증 절차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양사는 이번 공동협력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표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